가족 연구를 위한 혼합방법론에 대한 고찰

양 성 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

가족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이론을 수립해야하며, 동시에 그 이론적 산물을 생산해내는데 적합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발전시켜야한다. 본 논문은 가족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실용주의(pragmatism)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연구사례를 통해 혼합방법연구가 어떠한 과정과 단계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석주의과학(interpretive science)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방법론과 실증주의과학(positivistic science)을 근간으로 하는 양적방법론 사이의 패러다임 논쟁은 점차 연구방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근거는 실용주의과학(pragmatic science)에서 찾을 수 있다. 실용주의는 모든 연구를 실천과 연관시켜 수행하는 탐구적 태도로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현실에 적용가능한가"를 중요시한다.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혼합방법연구는 연구자가 단일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 및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관점, 연구방법, 전략, 개념 및 언어를 결합 또는 통합하는 것이다.

혼합방법연구의 근본논리는 질적 및 양적방법론 모두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며, 복잡한 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고, 방법론이란 결국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서 출발한다. 혼합방법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단순한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체계이론의 명제처럼,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합함으로써 나타나는 상승효과(synergy)를 기대한다. 연구하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결과의 합산을 뛰어넘는 심층적 통찰, 보다 폭넓은 관점의 수용, 연구의 유연성 및 타당성 향상이 혼합방법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의 통합은 관심현상 자체와 그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연계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방법을 사용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가족"을 연구하는 실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연구사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 우리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환자가족이 겪는 주관적 경험을 고찰하려는 질적인 시도와 함께 이들의 구체적인 어려움, 욕구, 대처방식 등에 관한 실증적이고 타당성 있는 양적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혼합방법 유형 중 삼각혼합연구설계(triangulation mixed methods design)를 통해 연구대상선정,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과의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제시하였다.